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 시온 신앙의 신학적 논리: 여호와의 왕권과 시온의 거주, 그리고 안전

이준혁(목원대)

1. 서론

시온신학은 시온을 여호와의 왕권과 임재의 장소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신앙 전통을 가리키는 연구사적 개념으로, 구약성경의 신학적 해석과 역사 인식에 대한 논의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다.¹ 이후 전통사적 연구의 발전과 함께 시온 전승은 이스라엘 신앙사 안에서 하나의 전승 단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예루살렘 선택 전통, 여호와의 왕권 고백, 그리고 성전 신학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체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온 관련 전승은 여호와의 왕권과 임재, 보호에 대한 다양한 신앙 고백이 역사적 경험 속에서 축적되고 재해

1 시온신학(Zion theology)은 마르틴 노트(Martin Noth)와 게르하르트 폰 라드(Gerhard von Rad)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연구 틀이 마련되었고, 특히 1950-70년대에 기원, 연대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학계의 단일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Gerhard von Rad, "Die Stadt auf dem Berge," *EvT* (1948): 439-447; Martin Noth, "Jerusalem und die israelitische Tradition," *OTS* 8 (1950): 28-46.

석된 전통으로 이해되었다.²

기존 연구는 주로 시온신학의 기원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두어 왔다. 여부스 기원설은 예루살렘 정복 이전의 가나안 종교 전통과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고, 다윗-솔로몬 기원설은 예루살렘 정복과 성전 건축이라는 정치, 제의적 사건을 시온신학 형성의 결정적 국면으로 이해하였다. 이사야 기원설은 주전 8세기 말 예루살렘의 위기 경험 속에서 시온의 불가침 사상이 신학적으로 재구성되었다고 보았으며, 실로-벧케 기원설은 언약계 전승과 제의 중심 이동의 맥락에서 시온신학의 배경을 설명하였다.³ 이러한 연구는 시온신학이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온 전통임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였다.

이 기원 논쟁은 대체로 ‘언제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그 형성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신앙적 배열과 논리 구조가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으로는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다윗-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통합과

2 톨란드(Edzard Rohland)는 시온신학을 시편 본문에 근거해 네 요소로 정리하였다. 첫째, 시온은 북방 사폰(Zaphon)의 정상으로 묘사된다(시 48:2-3). 둘째, 낙원의 강이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온다(시 46:4). 셋째, 하나님은 그곳에서 혼돈의 세력(물)의 공격을 격파하신다(시 46:2). 넷째, 하나님은 시온에서 열방과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다(시 46:6; 48:4-6; 76:4-6). 톨란드가 시편을 중심으로 분석한 시온신학의 네가지 요소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온신학의 기본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dzard Rohland, “Die Bedeutung der Erwählungstraditionen Israels für die Eschatologie der alttestamentlichen Propheten” (PhD diss., Heidelberg, 1956), 142; J. M.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collected essay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2), 313에서 재인용.

3 시온신학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부스 기원설(Wildberger; Lutz; Stolz; Hayes), 다윗-솔로몬 기원설(Rohland; Roberts; Latt), 이사야 기원설(von Rad; Anderson; Clements), 그리고 실로-벧케 기원설(Noth; Ollenburger) 등이 제시되어 왔다. Fritz Stolz, *Strukturen und Figuren im Kult von Jerusalem, Studien zur altorientalischen vor- und frühisraelitischen Religion*, BZAW 118 (Berlin: W. de Gruyter, 1970);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313-330; R. E. Clements, *Isaiah and the Deliverance of Jerusalem*, JSOTSup 13 (Sheffield: JSOT Press, 1984); Jörg. Jeremias, “Lade und Zion: Zur Entstehung der Ziontradition,”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1971): 183-198.

성전 건축이라는 제의적 중심 확립이 결합된 시기로서, 여호와의 왕권 고백과 시온 선택 전승이 결합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을 갖춘 국면으로 평가된다.⁴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해석상의 쟁점이 제기된다. 곧, 시온 관련 신앙을 통일 왕국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해해 온 해석 경향이다. 이러한 접근은 왕권과 성전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설명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해당 전승 안에 배열된 신앙 고백의 구조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그 기능을 정치적 목적에 환원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나아가 만일 이 전승에 나타난 시온 이해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정당화 담론에 불과하다면, 이후 예언자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윤리적 조건과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수용한 현상은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⁵

본 연구는 위에서 검토한 기원 논쟁 및 이데올로기 비판적 접근과는 달리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 시온시편 전승의 초기 전승 층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전승에 배열된 신앙 고백들의 논리적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⁶ 특히 시온의 선택과 안전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 신학

4 로버츠(J. J. M. Roberts)는 하나님의 종주권 고백과 시온 선택 전승의 결합을 다윗 왕조 형성과 연결시키며 이를 통일 왕국기의 정치, 신학적 재편 과정 속에서 이해하였다. 라토(Annti Laato) 역시 성전 건축과 폭풍신 이미지의 수용을 근거로 시온신학의 형성을 다윗-솔로몬 시대로 소급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온신학의 핵심 모티프가 통일 왕국기의 제의적 중심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기원 문제에 관한 종합적 정리는 이준혁,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30.4 (2024): 311-332를 참조하라.

5 시온신학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예언자로는 미가(미 3장)와 예레미야(렘 7, 26장)이다. 인그리드 헬름(Ingrid Hjelm)은 시온신학을 성경 텍스트 외부에 전제된 고정 개념으로 이해하는 접근을 비판하며, 시온전승을 텍스트의 형성과 편집 과정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ngrid Hjelm, *Jerusalem's rise to sovereignty: Zion and Gerizim in competition*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6. 안티 라토(Annti Latto) 역시 공식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편집비평과 전승사, 문화 간 전이를 결합한 분석을 제안한다. Annti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T&T Clark: Bloomsbury Publishing, 2018), 1-282.

6 한편 최근에는 시온신학의 공간적 이해와 기원을 해명하려는 시도도 제기되고 있다. 서재덕은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인 반면 시온은 “도시의 거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적 논리에 따라 배열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단순한 정치적 정당화 담론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 신앙적 구조 안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의 시온 관련 신앙은 단일하지 않다. 시온의 안전을 여호와와 임재에 직접 귀속시키는 전승과, 윤리적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승이 이 시기 안에서도 구별된다. 본 연구는 전자의 전승 층위, 곧 윤리적 자격을 전제하지 않고 여호와와 왕권과 임재로부터 안전을 도출하는 초기 전승 층위에 분석을 집중한다. 이 층위와 후대의 윤리적 재해석 층위의 구별 자체가 본 연구의 핵심 논지를 이루며, 이후 예언자들의 비판을 해석하기 위한 신학적 맥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온신학을 서로 연결된 신앙 모티프들의 흐름으로 접근한다. 곧 여호와를 열방 위에 계신 ‘큰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여호와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믿음이 어떻게 함께 나타나며, 이 두 고백으로부터 시온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분석한다(시 2:6; 76:2; 46:5).

이 과정에서 로버츠(J. J. M. Roberts)가 제시한 시온신학의 요소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만 그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이를 초기 전승 층위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층위 구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초기 전승 층위에 나타난 시온 관련 신앙의 범위와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후 예언서의 비판을 해석하기 위한 신학적 맥락을 제공할 것이다.

구분을 제시하고, 시온신학의 기원을 고대 근동 도시 신학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한다. 이 연구는 시온신학의 독자적 성격을 공간적 차원에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신앙 고백들의 논리적 배열 구조, 곧 여호와와 왕권, 임재, 시온의 안전 간 연결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 서재덕, “도시와 성전: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6.2 (2020): 32.

2. 시온신학 요소 분석과 적용 범위

본 연구는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와 연결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시온시편 전승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 목적은 해당 전승 안에 나타나는 신학적 구조를 규명하는 데 있다. 여기서의 작업은 역사적 재구성이나 개별 본문의 연대 확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관심의 초점은 전승 층위 안에서 시온신학이 어떠한 신학적 논리에 따라 형성되고 배열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연대에 대한 단정이 아니라, 설정된 범위 안에서 도출된 해석적 제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시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시온을 여호와의 좌정지로 전제하는 시편들, 곧 시편 2, 46, 47, 48, 76, 132편 등에 한정된다. 이 시편들은 여호와의 왕권 고백과 시온의 선택,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온의 안전이라는 구조를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 준다.

반면 시편 15편과 24편, 그리고 이사야 33장과 같은 본문들은 시온 공동체의 윤리적 자격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온의 안전을 공동체의 도덕적 상태와 결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본문들은 그 전승 형성과 연대 문제에서 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 분석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구분은 절대적 연대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른 방법론적 선택임을 밝힌다.

이와 같이 분석 범위를 시온시편 전승으로 한정된 후, 본 연구는 시온신학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검토한다. 시온신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 가운데, 시편을 중심으로 분석을 제시한 롤란드(Edzard Rohland)의 연구와 이를 확장한 로버츠(J. J. M. Roberts)의 모티프 분석은 중요한 참고 틀을 제공한다. 롤란드는 시온신

학을 단일한 교리로 파악하지 않고, 시온과 여호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신학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온신학의 기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로버츠 또한 이러한 롤란드의 분석을 수용하면서, 시온신학의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확장하였다. 로버츠의 요소 구분은 시온신학을 완성된 교리 체계로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몇 가지 핵심 신앙 고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그는 시온신학의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⁷

- 1)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큰 왕이다.
- 2)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 A.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은 시온의 지형을 암시한다.
 - i. 시온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다.
 - ii. 시온은 낙원의 흐르는 강물로 둘러싸여 있다.
 - B.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은 시온의 안전을 암시한다.
 - i.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적들로부터 시온을 보호하신다.
 1.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신다.
 2. 열방의 왕들로부터 보호하신다.
 - ii.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다.
 1. 적들은 완전한 실패를 겪는다.
 2. 전쟁은 종결된다.
 3. 노략물이 취해진다.
 - iii.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주권을 인식하게 된다.
 - C.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은 시온의 주민들을 위한 암시이다.
 - i.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공유한다.
 - ii.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7 J. J. M.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collected essay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2), 332.

로버츠에 따르면 시온신학은 첫째, 여호와를 온 세상의 ‘큰 왕’으로 고백하는 데서 출발한다(시 47:2, 7-8; 시 48:2).⁸ 이 왕권은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통해 구체화된다(시 132:13-14; 시 48:1-3). 따라서 시온은 여호와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는 장소이자 왕의 좌정지로 이해된다(시 9:11; 시 76:2).⁹

둘째, 이러한 왕권 고백은 여호와의 임재가 시온에 머문다는 이해로 이어지며, 그 결과 시온은 안전이 보장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 안전은 군사적,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자체에 근거한다(시 46:5-7; 시 48:8). 시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열방의 패배와 전쟁의 종결, 그리고 노략물의 취득은 이러한 이해를 서사적으로 보여준다(시 48:4-7; 시 76:3-6). 더 나아가 이러한 사건들은 여호와의 통치가 시온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으로 하여금 그의 종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확장됨을 드러낸다(시 47:8-9; 시 76:12).¹⁰ 이처럼 로버츠에게서 시온신학은 여호와의 왕권에서 시작하여, 시온에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여호와의 보편적 주권 인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로버츠가 제시한 시온신학의 분석 요소들은 시온신학 논의를 위한 유용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 틀을 따르면, 여호와를 열방 위에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그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셨다는 신앙이 상호 결합되는 양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시온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¹¹ 이러한 두 신앙 요소를 다윗 왕권의 성

8 윗글, 332-337.

9 윗글, 337-340.

10 윗글, 340-342.

11 윗글, 332;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313-330;

립과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화라는 역사적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다윗-솔로몬 기원 가설에 해당한다. 이 가설은 시온신학의 초기 모습을 설명하려는 대표적 연구 틀로 자리 잡아 왔으며, 이후 연구들은 이를 수용하거나 수정, 비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¹²

따라서 본 연구가 로버츠의 분석 틀을 참조하는 것은, 시온신학을 핵심 요소 단위로 나누어 검토해 온 연구 전통을 이어받으려는 방법론적 선택이다. 다만 이는 로버츠의 모티프 구성을 전면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요소가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의 초기 전승 층위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시온 공동체의 윤리적 자격을 강조하는 ‘C’ 요소이다. 로버츠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은 시온의 주민들을 위한 암시이다’라는 요소(C 요소)의 근거로 이사야 33장 13-16절과 시편 24편 3-4절을 제시한다.¹³

그러나 이 본문들은 초기 전승 층위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시온신학이 역사적 위기 속에서 재해석되던 후대, 특히 요시야 시대 전후의 신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¹⁴ 나아가 이러한 본문들을 초기 전승 층위의 시온 관련 신앙의 구

12 Wilhelm J. Wessels, “**דִּבְרֵי** Proclamations in the Book of Jeremiah: The Dilemma of Jeremiah 4:10 and 23:17,” *HTS Theolog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9, no. 2 (2023): Article a8122; Jonathan D. Bentall, “Jeremiah’s Temple Sermon and the Hermeneutics of Tradition” (PhD diss., Durham University, 2017);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282.

13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42.

14 사 33장은 19세기 후반까지 일반적으로 역사적 이사야의 저작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스테이드(Bernhard Stade)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저자와 연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었고, 현대 학계에서는 그 연대를 후대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 로버츠(Roberts)는 여전히 사 33장을 역사적 이사야의 저작으로 이해하며 앗수르 위기 상황과 연결시키는 반면,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습 3:13에 나타난 사회윤리적 정결 계

성 요소로 함께 적용할 경우, 논리적 긴장이 드러난다. 로버츠는 여호와
의 임재로 인해 시온에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시에 그 안전이 공동체의 합당한 삶에 의해 유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는 요소를 동일한 구조 안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하는 시
온시편 전승에서는 시온의 안전이 주민들의 윤리적 상태에 의해 조건
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온의 안전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왕으로 임재
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기초한다(시 46:5; 48:8; 76:3). 이러한 차이는 전
승의 재해석과 배열 과정 속에서 시온 이해가 달리 구성되는 양상을 반
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초기 전승 층위에서는 '의에 합
당한 자만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는 윤리적 자격 논리가 시온의 안
전을 설명하는 전제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온의 안전을 여호와의 왕권과 임재에 직
접 연결하는 이해와, 그 안전이 공동체의 삶의 상태에 따라 유지되거나
상실된다고 설명하는 이해를 동일한 층위의 요소로 병치하는 것은, 전
승 층위를 구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해석상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
한 긴장은 시온신학의 내적 모순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기
에 형성된 전승들을 하나의 요소로 묶어 읽을 때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

님을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자격으로 이해하며, 시 15, 24편, 사
33:14-16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이를 요시아 시대의 성전 정화와 연결시킨다. 이에
비해 클레멘트(Ronald E. Clements)는 사 33장을 바벨론 포로기 본문으로 간주하였으
며, 벤 즈비(Ben Zvi)는 시편 15편의 형성 시기를 왕정 이후(post-monarchic)로 추정하
였다. 더 나아가 빌드버거(Hans Wildberger)는 사 33장의 연대를 페르시아 시대로 보
았고, 카이저(Otto Kaiser)는 헬레니즘 시대까지 확대하여 제안하였다. 이처럼 사 33
장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결정적인 학문적 합
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Hermeneia*,
419-420; Ehud Ben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BZAW 198;
Berlin: de Gruyter, 1991), 148; Marvin A. Sweeney, *Zephan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192; Ronald E. Clements, *Isaiah 1-39, NCB* (Grand
Rapids: Eerdmans, 1980), 265; Hans Wildberger, *Isaiah 28-39, CC*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270-272.

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버츠의 요소 구분을 분석 출발점으로 삼되, 초기 전승 층위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범위 안에서는 ‘여호와의 왕권’, ‘시온의 거주’, 그리고 ‘시온의 안전’이라는 세 모티프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한다.

3. ‘큰 왕이신 여호와’ 모티프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 시온시편 전승에서 시온 이해는 여호와를 ‘큰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출발한다. 이 모티프는 시온신학의 개별 요소로 취급되기보다, 시온의 선택과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시온의 안전에 대한 이해 전체를 떠받치는 신학적 전체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큰 왕이신 여호와’ 모티프는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 시온 관련 신앙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 왕권 고백은 고대 근동의 신적 공의회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대 근동 문헌에서 신적 공의회는 우주적 질서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기구로 묘사되며, 신들의 위계와 통치 범위를 규정하는 자리로 이해되었다. 성경 역시 이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신적 공의회는 여호와의 주권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기능한다.¹⁵

15 구약성경에서 신적 공의회(divine council)의 전형적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으로는 왕상 22:10-23; 사 6장; 욥 1-2장; 시 82편; 속 3장; 단 7:9-14 등이 있다. 이 본문들에서는 의장 역할을 하는 신이 중심에 자리하고, 다른 존재들이 그를 둘러싸는 회합 구조가 반복되며, ‘앉다’(יָשָׁב)와 ‘서다’(יָסַד)와 같은 표현이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고대 서아시아 문헌에 나타나는 신적 공의회 전통과 공통된다. 자세한 내용은 Min Suc Kee, “The Heavenly Council and Its Type-Scene,” *JOT* 31.3 (2007): 259-273 를 참고하라. 신적 공의회에 관한 대표적인 책들을 참고하려면 E. Theodore Mullen, *The Divine Council in Canaanite and Early Hebrew Literature* (Chico: Scholars Press, 1980); L.

초기 이스라엘의 신관에는 이러한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¹⁶ 신명기 32장 8-9절은 엘리온(‘지극히 높으신 이’, 흔히 엘의 칭호로 이해됨)이 열방을 나누고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할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분깃으로 정해졌음을 전한다. 이 과정에서 민족들의 분할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는데,¹⁷ 이는 열방 분배가 일정한 신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엘-엘리온 아래에 여호와가 위치한 것처럼 보일 여지를 남긴다.¹⁸ 그

K. Handy, *Among the Host of Heaven: The Syro-Palestine Pantheon as Bureaucracy*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4)를 참조하라.

- 16 이러한 다신론적 묘사는 고대 서아시아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며, 고대 이스라엘의 신관 형성 과정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을 점진적 과정으로 이해하며, 포로기 이전에는 야훼에 대한 배타적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와 다신론적 관습이 공존하였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초기 이스라엘 종교는 ‘엄격한 의미의 철학적 유일신론’이라기보다는 특정 신에 대한 배타적 충성을 강조하는 형태에 가까웠다고 설명된다(삼상 26:19-20; 룻 1:15-16; 왕하 5:17). 실제로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이 지역 신들을 섬겼다는 증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왕하 16:3; 21:6; 23:10; 렬 7:31), 기원전 8세기 쿤탈렛 아즈루드 비문에 나타난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는 표현은 당시 종교적 현실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기민석, “시 82편: 우가랏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15.2 (2009): 120-121; 환편, 포로기 이후의 문헌, 특히 이사야 40-55장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하는 신학적 선언을 분명하게 제시한다(사 40:12-26; 41:21-29; 43:10). 이러한 본문들은 여호와와 유일성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 결과, 신적 공의회 개념 역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천상 존재들의 위계 구조로 재해석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된다(신 32:8(LXX); 단 10:13, 20; 쿵란의 Songs of the Sabbath Sacrifice). 자세한 내용은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17-131를 참고하라.
- 17 70인역(LXX)은 신 32:8의 해당 표현을 “하나님의 천사들”(the angels of God)로 번역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번역이 보다 오래된 형태인 “하나님의 아들들”(the sons of God)을 암시한다고 이해해 왔다. 이러한 해석은 쿵란 문헌 4QDeut^a에 동일한 구절이 분명히 “신들의 아들들”(בְּנֵי אֱלֹהִים)로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되었다. Michael S. Heiser, “Deuteronomy 32:8 and the Sons of God,” *BibSac* 158 (2001): 52-74. 더 나아가 이러한 신적 질서에 대한 다신교적 흔적은 신 32:43에서도 확인되는데, 4QDeut^a와 70인역(LXX)에 따르면 이 구절에는 “모든 신들은 그에게 경배하라”(“worship him all gods”(LXX: “sons of God”)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Eugene P. McGarry, “The Ambidextrous Angel (Daniel 12:7 and Deuteronomy 32:40): Inner-Biblical Exegesis and Textual Criticism in Counterpoint,” *JBL* 124 (2005): 211-228.
- 18 엘-엘리온을 서부 셈족 판테온의 최고신으로 이해하고, 그가 신적 공의회를 통해 열방

러나 이 본문은 여호와와 엘과 동일시되는 신학적 발전 단계를 반영하며, 이스라엘이 종주이신 여호와와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¹⁹ 중요한 점은, 이 시기 사상 속에서 각 민족의 신들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일정한 통치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사기 11장 24절에서도 확인된다.²⁰

이와 유사한 모티프는 시편 82편에도 등장한다. 이 시편은 신적 공의회 장면의 배경으로, 여호와께서 다른 열방의 신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한다.²¹ 한때 각 민족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던 신들이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통치 권

을 분배한다는 사상은 에이스펠트(Otto Eissfeldt)의 연구 이후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Otto. Eissfeldt, *El im ugaritischen Pantheon*,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r Säch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Leipzig, Phil. Hist. Klasse 98/4 (Berlin: Akademie, 1951).

19 로버츠(Roberts)와 라토(Latto)는 에이스펠트(Eissfeldt)가 제시한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로버츠는 발람의 신탁에 등장하는 엘과 엘리온(민 24:16), 그리고 하나님과 엘의 병행 표현(민 23:8)에 주목하면서, 이미 이 전승들 안에서 하나님은 엘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로버츠는 종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개념을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독특한 특권으로 이해하며, 이를 엘 중심 판테온 구조의 잔존으로 보지 않는다.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35-336. 이와 유사하게 라토 역시 신 3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엘과 완전히 동일시된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또한 우가릿 판테온 목록에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와 청동기 시대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확립된 판테온의 신이 아니라, 신흥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에 의해 도입된 신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21-122.

20 Roberts, 윗글, 335.

21 우가릿 문헌에 비추어 볼 때, 시 82:1에 사용된 "신들의 모임" (עֲרֻתָּאֵל)은 권위 있는 신적 공의회를 가리킨다. 특히 시 82편의 특징은 이 공의회가 신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주제는 메소포타미아 문헌의 신적 공의회 장면에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엔릴(Enlil)과 닌릴(Ninlil) 서사에서는 엔릴이 신적 공의회 결정에 따라 추방되며,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서는 티아맛(Tiamat)의 반역과 킹구(Kingu)의 처형이 신들의 공의회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Min Suc Kee, "A study of the Heavenly Council in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and its employment as a type-scene in the Hebrew Bible" (PhD dis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003), 37-40.

한을 박탈하고 직접 다스리시는 상황이 선포된다. 로버츠는 이러한 신학적 전환의 역사적 배경을 다윗의 정복과 연결시킨다.²² 다윗의 군사적, 정치적 확장은 영토 확장을 넘어, 여호와와의 지위가 열방 위의 왕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계기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대 근동에서 정치적 권력의 이동이 신적 세계의 질서 재편으로 이해되던 관념과도 맞닿아 있다. 예컨대 바벨론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서는 마르둑(Marduk)이 신들의 지도자로 부각되지만, 앗시리아 전승에서는 이 자리가 앗수르(Assur)로 대체된다.²³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중심의 이동이 신적 위계의 재구성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유사하게, 다윗 왕권의 부상은 여호와가 ‘큰 왕’으로 묘사되기 시작하는 신학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신학은 시편 본문에서 확인된다. 시편 47편과 48편은 여호와를 열방을 다스리는 ‘큰 왕’으로 선포하며, 특히 시온을 “큰 왕의 성”으로 부른다(시 48:1-2). 시온은 여호와와의 왕권이 좌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중심이 된다. 다시 말해, 시온의 신학적 의미는 여호와와의 왕권 고백에서 직접 근거한다.

이 점에서 여호와와의 왕권은 다윗 왕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도 구별된다. 다윗은 여호와와 동일한 차원의 왕이 아니다. 여호와와의 통치를 대표하고 집행하는 대리 통치자로 이해된다. 이러한 왕권 이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던 중주-봉신 관계와 닮아 있다.²⁴ 시편 2편은 왕의 즉위가 여호와와의 선택과 임명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며(시 2:6), 인간 왕권이 여호와와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22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36.

23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17.

24 로버츠는 고대 근동의 왕권 이해에 근거하여, 시 2:1-3을 여호와와의 중주권에 대한 봉신들의 반역적 발언으로 해석하며, 인간 왕을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 이해한다.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36-337.

이러한 구조는 시온신학을 그저 왕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사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막아준다. 여호와와는 왕 위의 왕이며, 인간 왕권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다.

여호와를 ‘큰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그의 통치를 현실과 분리하지 않는다. 왕이 다스릴 장소를 전제로 하듯, 여호와의 왕권 역시 구체적인 통치의 공간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왕권 고백은 그가 실제로 통치하시는 장소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며, 곧 시온의 거주와 임재에 대한 신학으로 이어진다. 시편 76편이 여호와의 처소가 시온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은(시 76:2), 왕권과 거주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와 연관 가능한 시온 관련 신앙에서 ‘큰 왕이신 여호와’ 모티프는 시온의 선택과 임재, 그리고 시온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토대를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 여호와를 ‘큰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이 시기 시온 이해를 지탱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동시에 시편 전승은 이러한 왕권을 인간 왕과 동일시하지 않고, 여호와의 통치가 인간 왕권을 포함하되 그 위에 놓여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시 2:6; 47:8). 이때 승리와 통치의 궁극적 행위자는 일관되게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로 귀속되며, 이러한 귀속 방식은 통치의 중심이 인간 왕권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 구조는 이후 전개될 시온의 거주와 안전 이해의 신학적 출발점을 이룬다.

4. 여호와와 시온 거주 모티프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와 연관 가능한 시온 관련 신앙에서 왕으로 고백된 여호와는 자신의 거처를 가지는 분으로 이해되며, 그의 통치는 실제 장소와 연결된 방식으로 진술된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시온은 정치적 중심지를 넘어, 여호와와 왕권이 좌정하는 장소로서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 전승에서 확인되는 두 번째 신앙 요소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처소로 선택하셨다는 고백이다. 시편 78편과 132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음을 증언하며(시 78:68; 132:13), 시온시편들은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규정하고 그 성 안에 여호와께서 계심을 강조한다(시 46:4-5; 48:1-3, 8-9; 76:2). 시온은 여호와와의 선택을 통해 거처로 이해되며, 그 선택에 근거해 신학적 의미가 부여된다.

여호와와 시온 거주는 법궐 전승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스라엘 초기에 여호와와의 임재는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으며, 광야에서는 성막과 법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여호와는 특정 장소에 고정된 분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법궐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사건은 이러한 이해에 전환을 이룬다(삼하 6:12-17). 이 사건은 여호와와의 임재가 인간에 의해 통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호와 자신이 주권적으로 이동하며 임재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⁵ 웃사의 죽음 사건은 여호와와의 거룩함과 주권이 인간의 손에 달려

25 Miller와 Roberts는 법궐 전승을 고대 근동의 신 이동 서사들과 비교하면서, 법궐이 블레셋에 의해 탈취된 사건을 여호와와의 무력함이 아니라 그의 주권적 행위로 해석한다. 특히 '마르둑의 예언(Prophecy of Marduk)' 전승과의 비교를 통해, 신이 타국에 머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권적 통치자임을 강조하며, 법궐 전승의 최종 귀결이 예루살렘 즉, 여호와가 선택하신 시온에 있음을 밝힌다(시 78:68). P. D. Miller and J. J. M. Roberts,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삼하 6:6-7). 따라서 법궤의 예루살렘 이전은 여호와와의 임재가 한 장소에 갇히는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신앙 고백이 역사 속에서 구체화된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에 해당한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통해 여호와와의 초월성을 고백한다. 그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여호와를 모실 수 없다고 고백하며, 성전이 여호와를 제한할 수 없음을 말한다(왕상 8:27). 동시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여호와와의 임재가 시온이라는 특정 장소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한다(왕상 8:16, 29, 44). 이 점에서 성전은 여호와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다. 성전은 시온 안에서 여호와와의 초월적 통치가 기억되고 고백되는 장소로 기능한다.

1) 시온의 지형

시온의 지형에 대한 신학적 묘사는 여호와와의 거주 모티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시편 48편은 시온을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시 48:2)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북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폰(צפון)’은 단순한 방위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이 용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일반적인 ‘북쪽’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창 13:14; 신 3:27). 그러나 예루살렘은 실제 지리상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지 않으며, 시편 48편의 문맥 또한 지리적 방향을 설명하기보다 시온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점은 ‘짜

The Hand of the Lord: A Reassessment of the “Ark Narrative” of 1 Samuel (Atlanta: SBL Press, 2008), 14-19.

폰'이 단순한 방위 지시어라기보다 상징적 의미를 지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바알의 산이 북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이 곧 북방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²⁶

이러한 어휘적 특수성은 고대 서북셈계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 히브리어 '짜폰(צִפּוֹן)'은 우가리트어 '스본(špn)'과 어원을 공유하며, 우가리트어에서 '스본(špn)'은 기본적으로 '북쪽'을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지만, 신화 전승에서는 바알이 거하는 산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기능한다.²⁷ 실제로 우가리트 신화에서 '스본(špn)'은 바알-하닷이 거하는 산을 가리키며, 이는 라스 샴라 북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자벨 엘 아크라(Jebel el-Aqra, 고대 문헌의 Mt. Kassius)와 일반적으로 동일시되어 왔다.²⁸ 우가리트 문헌에 따르면 이 산은 바알이 혼돈의 세력 얄무(Yammu)를 물리친 이후 신전을 세운 장소로, 신들의 거처이자 신적 통치가 가시화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²⁹ 더불어 시편 48편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City of our God)”, “거룩한 산(His Holy Mountain)”, “높은 터(The Beautiful Height)”, “온 세계가 즐거워 함이여(The Joy of the whole earth)”, “시온산(Mount Zion)”, “북방에 있는 시온산(The Reaches of Zaphon)”, “큰 왕의 성(The City of the Great king)”은 우가리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거하는 산을 묘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³⁰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48편 2절의 표현 “북방에 있는 시온 산”(צִפּוֹן יְרוּשָׁלַיִם/하르 짜온 야르크테이 짜폰)은 시온산과 짜폰을 병렬

26 Jon D. Levenson,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San Francisco, California: HarperCollins, 1985), 146.

27 Peter C. Craigie, *Psalm 1-50, WBC* 19, 353; Richard J. Clifford,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57.

28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317; Clifford, *윗글*, 143.

29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04-105.

30 Clifford,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142-143.

배치가 아닌 상징적 동일시를 위하여 시온을 짜폰으로 재규정하는 신학적 진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로빈슨(Robinson)은 시온산을 짜폰과 동격으로 놓는 이 표현이 신의 존재와 임재가 지닌 신비를 언어적으로 표상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³¹ 우가릿 전승에서 신화적 산은 먼 초월적 공간에 위치하지만, 동시에 도시 내부의 신전 공간으로 시각화되고 현재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우가릿 도시 안에는 다간(Dagan)과 바알(Baal)의 신전이 존재했으며, 이는 바알이 짜폰산에 거하면서도 동시에 도시 안에서 예배되는 신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을 고려할 때, 시편 기자가 시온을 짜폰으로 호명하는 것은 신화적인 산을 예루살렘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구절에 사용된 ‘יְרֻכָּהּ’(야르크테이)’는 수평적인 용어(삿 19:1, 18; 왕하 19:23; 시 128:3)이기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한 수직적인 용어(사 14:15)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수형 ‘יְרֻכָּהּם’(야르크타임)³²은 산의 가장 높은 지점, 곧 신적 영역과 맞닿는 정점이나 봉우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³ 따라서 시편 48편 2절은 신의 임재와 통치가 현현하는 가장 높은 곳으로서의 거룩한 산임을 선언하

31 바알의 궁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은과 금으로 장식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 궁전의 묘사는 우가릿에 있는 신전을 묘사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왕상 6, 7장)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A. Robinson, "Zion and sāphôn in Psalm XLVIII 3," *VT* 24 (1974): 120-121.

32 이 단어는 히브리어 יְרֻכָּה의 쌍수 연계형(dual construct), 곧 יְרֻכָּהּ이다. יְרֻכָּה의 단수형은 기본적으로 ‘옆면(flank)’ 또는 ‘측면(side)’을 의미하며, 쌍수형으로 사용될 경우 문맥에 따라 ‘가장 깊숙한 부분들(extreme parts)’이나 ‘안쪽, 오목한 곳들(recesses)’을 가리킨다. 시 48:2의 용례에서는 이러한 의미 가운데 ‘extreme parts’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A. Robinson, "Zion and sāphôn in Psalm XLVIII 3," *VT* 24 (1974): 118-123을 참조하라. 에이스펠트(O. Eissfeldt) 역시 이 표현을 산의 정상, 곧 산 꼭대기로 해석하였다. “יְרֻכָּה” *HALOT* 2:439.

33 A. Robinson, "Zion and sāphôn in Psalm XLVIII 3," *VT* 24 (1974): 121.

는 진술로 읽혀야 한다.³⁴

이러한 짜폰 산 모티프는 시편 48편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편 89편 12절에서는 네 개의 거룩한 산이 병렬적으로 언급되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번역된 'יָמִינַי'(야민)'은 일반적인 방향어와 형태, 용례가 다르며, 통상적인 남과 북의 방향 표현(יָמִינֶיךָ יְמִינֶיךָ)과도 구별된다.³⁵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시편 89편 12절의 짜폰과 야민을 헬몬산과 다불산과 더불어 짜폰산(Mt. Zaphon)과 아마누스산(Mt. Amanus)으로 이해한다.³⁶ 또한 이사야 14장 13-15절에서 짜폰산은 신적 공의회 장소로 묘사되며, 이는 짜폰이 고대 근동에서 신적 통치가 현현하는 산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편 48편의 시온-짜폰 동일시는, 이방의 신화적인 산을 여호와의 임재와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 재구성한 진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나안 신들의 거처를 묘사하던 산의 언어는, 여호와가 좌정한 시온을 설명하는 신학적 언어로 이전된다.

2)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강

시편 46편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강과 그 물줄기가 온 성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묘사한다. 이는 후에 미래의 희망에 대한 시온의 상징적인 한 부분으로 발전한다.³⁷ 즉, 여호와와 보좌로부터

34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새번역에서처럼 '짜폰 산의 봉우리'로 옮기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반영한다.

35 성경에서 "남쪽"이란 뜻으로 쓰인 구절을 찾아볼 때, 표기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יָמִינַי: 왕상 6:8; 7:39; 왕하 11:11; 겔 47:1-2; 대하 4:10; 23:10). "북쪽과 남쪽"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도 여기에서의 표현과는 다르다(יָמִינֶיךָ וְיָמִינֶיךָ, 창 28:14; 단 8:4).

36 Oswaldus Mowan, "Quatuor Montes Sacri in Ps. 89, 13?," *VD* 41 (1963): 11-20;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318-319에서 재인용. "lymiy" *HALOT* 2:414.

37 Dorothy Margaret Sidebotham, "Zion and the psalms: A re-examination of the zion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이미지로 확장되는 것이다(겔 47:1-2; 욕 3:18; 슥 14:8). 이러한 강의 모티프는 우가랏 전승에서 엘(EL)의 보좌가 두 강의 근원에 위치한다는 이미지와 연결된다. 여호와와 엘과 동일시되면서, 그의 거처에 생명을 주는 강이 흐른다는 묘사가 시온신학 안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된 것이다. 이로써 시온은 질서와 생명이 흘러나오는 중심지로 이해된다.³⁸

시온이 신들의 거처를 묘사하는 언어로 설명되는 이유는 여호와와 왕권이 그곳에 좌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여호와와 시온 거주에 대한 고백은 시온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신학적 확신을 가능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은 시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이어지며(시 46:5), 시온 거주 모티프는 여호와와 왕권 고백과 시온의 안전 인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여호와와 시온 거주에 대한 고백은 초월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신앙적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와 연관 가능한 시온 관련 신앙은 바로 이러한 연관 구조 안에서 배열된다. 시온은 인간 왕권의 정치적 중심지로서 이해되기보다, 여호와와 선택과 임재에 의해 신학적 중심성을 갖는다(시 46:5; 132:13-14). 이 공간은 여호와와의 현존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후 시편에 나타나는 안전과 보호의 모티프가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trad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psalms” (PhD dis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91), 13.

38 우가랏 문헌에서 엘의 보좌는 신들의 집회가 열리는 엘산(Mt. LL)에 있으며, 두 강의 근원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된다. 로버츠는 여호와와 엘이 동일시되면서, 강의 이미지가 시온전승 안으로 수용되었다고 보며, 이를 바알의 짜폰산과 엘의 엘산 전승이 합성된 결과로 이해한다. 올렌버거(Ollenburger) 역시 시온은 짜폰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동시에 생명을 주는 강이 흘러나오는 장소로 묘사된다고 지적한다.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39;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319-321; Ben C. Ollenburger,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JSOT4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51.

5. 시온의 안전과 불가침 모티프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 시온시편 전승에서 시온의 안전과 불가침에 대한 인식은 여호와를 ‘큰 왕’으로 고백하는 왕권 신앙과, 그 여호와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이다. 이러한 이해는 시편 본문에서 확인된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성이 흔들리지 않고(시 46:5),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요새가 되신다(시 48:3).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온의 안전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벽이 견고해서가 아니다. 주민의 도덕적 상태 때문도 아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곧 안전의 이유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48편은 시온을 “큰 왕의 성”(시 48:2)으로 규정하고, 열방의 왕들이 시온을 치러 왔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러가는 장면을 묘사한다(시 48:4-7). 여기서도 시온의 안전은 군사적 우위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온은 여호와의 성이며, 그 사실이 열방의 패퇴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시편 76편 역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시 76:2-3)라고 선언하며, 여호와의 거주와 시온의 안전을 연결한다. 이처럼 시온의 안전은 여호와의 임재에 의해 보증되며, 그 결과 시온은 절대적 안전의 장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해는 시편들에서 일관된 전개로 나타난다.

첫째, 시온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 등장한다. 이 세력은 때로는 혼돈의 바다라는 신화적 이미지로 표현되고(시 46:1-3), 때로는 열방의 왕들과 국가들로 구체화된다(시 46:6; 48:4-6; 76:5-7). 혹은 두 이미지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사 17:12-14).³⁹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무질서와

39 다만, 적대적인 왕이나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돈의 상징으로 자주 의인화되었고, 폭풍신이 바다를 제압함으로 질서 잡힌 세계를 확립한다는 모티프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⁴⁰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가 흔들리는 바다와 무너지는 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위협을 묘사하는 방식은 이러한 배경과 맞물린다.⁴¹ 즉, 시온을 향한 공격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혼돈의 힘으로도 형상화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특정 역사 사건에 한정해 이해할 필요는 없다.⁴² 이러한 혼돈-질서의 이미지는 시편 48편에서도 드러난다. 시 48:7에서 다스스의 배들이 동풍에 의해 파괴되는 장면은, 하나님이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는 존재로 묘사되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와 연결된다.⁴³

둘째, 여호와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신다. 이때 시편들은 신적 현현 속에서 이루어지는 ‘책망(rebuke)’의 사건으로 묘사한다(시 46:6; 76:6, 8).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40.

- 40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가 잘 보여주듯, 혼돈으로 형상화된 바다를 물리치는 행위는 곧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사건이자, 신의 왕권과 신전 거주 권위를 확정하는 계기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마르둑과 티아맛, 바알과 암의 대결로 반복적으로 표현된다. “Poems about Baal and Anath,” trans. H. L. Ginsberg (*ANET*, 129-142); Frank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112-144.
- 41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19, 343.
- 42 초기 연구에서는 시 46, 48, 76을 주전 701년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과 연관 지어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Kirkpatrick; Mowinckel). 그러나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는 신의 왕권과 산에 좌정한 통치자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미 널리 공유된 시적, 신학적 언어였으며, 출 15:1-18과 같은 이른 본문에서도 확인된다. Shawn W. Flynn, *Yhwh Is King: The Development of Divine Kingship in Ancient Israel, VTSup* 159 (Leiden: Brill, 2014), 47-58. 이러한 점에서 해당 시편들의 이미지 세계를 특정 역사 사건에 한정하기 보다, 다윗-솔로몬 시기에도 사용 가능했던 신학적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14.
- 43 구약에서 다스스의 배들은 페니키아에 의해 건조된 배들로 묘사되며(왕상 10:22; 사 23:1; 겔 27:12), 하나님의 적들과 연관되어 언급된다(사 2:16; 23:1, 14). 시 48:7에서는 이 배들이 동풍에 의해 파괴되는데, 동풍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사 27:8; 렬 18:17; 겔 27:26; 욥 27:21). 이러한 이미지는 두로를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의 해상, 종교적 환경과도 부합한다.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05-109.

여호와와의 책망은 소리와 번개, 폭풍을 동반한 신적 현현의 방식이다. 시편 29편은 이 점을 가장 잘 나타낸다. 여호와와의 목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고(כִּשַׁשׁ, 시 29:5), 화염을 가르며(כִּבֵּן, 시 29:7), 광야를 진동시키신다(לִיָּהּ, 시 29:8). 이 동사들은 모두 여호와와의 음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하고 전복하며 질서를 재편하는 능력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⁴⁴

이러한 폭풍 현현의 언어는 바알 신화에서 바알이 자신의 산을 공격하는 적들을 향해 천둥과 번개의 음성으로 격퇴하는 장면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지닌다.⁴⁵ 시편 29편은 이 전투-폭풍 모티프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며,⁴⁶ 이후 시편 46, 48, 76편에 나타나는 ‘책망’ 언어는 시온신학의 맥락 속에서 다른 신학적 의미를 띠게 된다. 그 결과, 폭풍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의 주체는 더 이상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며, 그 음성은 시온에 거하시는 왕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된다.

셋째, 적들이 무너진 이후의 결과가 제시된다. 가장 먼저 전쟁의 무기들이 깨지고 땅에는 평화가 확립된다(시 46:9; 76:3, 8). 이어서 전리품

44 시 48:7에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셨다”(כִּשַׁשׁ)는 표현 역시 시 29:5의 “여호와와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כִּשַׁשׁ)는 서술과 어휘적으로 긴밀히 연결되며, 폭풍 속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와의 파괴적 현현이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토(Latto)는 시온 신학 전통 안에서 이러한 폭풍-현현 언어가 여호와와의 왕적 개입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능함을 지적한다.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49.

45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40-341.

46 시 29편의 기원과 관련하여, 긴스버그(H. L. Ginsberg)는 1936년에 이 시편이 가나안 시 전통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하였다. 이후 가스터(Theodor H. Gaster)는 이 견해를 발전시켜, 시 29편이 페니키아의 바알 하다드(Baal Hadad)를 찬양하던 시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이후 올브라이트 학파에 의해 폭넓게 수용되었고, 특히 크로스(F. M. Cross)는 가나안 시 전통과 이스라엘 신학의 재구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긴스버그-가스터의 기본 틀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으며, 다후드(M. Dahood) 역시 시 29편의 가나안적 배경을 전제하여 언어학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Theodor H. Gaster, “Psalm 29,” *JQR* 37.1 (1946): 55-65; Frank M. Cross, “Notes on a Canaanite Psalm in the Old Testament,” *BASOR* 117 (1950): 19-21.

이 취해진다는 고백이 나타난다(시 76:4-5). 마지막으로 열방은 여호와
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과 조공으로 그를 섬기게 된다(시 76:10-12).⁴⁷
이 결말은 시온의 안전이 여호와의 보편적 주권이 드러나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시온에서의 승리는 열방을 향한 신학적 메시지를 동반한다.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 시온 이해를 반영하는 시편에서 시온의 안
전은 윤리적 자격이나 공동체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온의 보호는 여호와의 선택과 임재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이
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온의 안전은 여호와의 왕권과 시온 거주 모
티프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신학적 진술로 나타난다. 이 점은 시편
이 적대 세력의 등장과 패퇴를 서술하면서도 그 원인을 인간 통치자의
역량이 아니라 여호와의 개입과 책망에 귀속시키는 방식에서 확인된다
(시 46:6; 76:6). 따라서 시온의 불가침성은 여호와의 임재에 근거한 진
술이며, 안전의 근거는 인간 왕권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에 놓여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에 형성된 시온시편 전승, 특히
윤리적 자격을 전제하지 않고 여호와의 왕권과 임재로부터 안전을 도
출하는 초기 전승 층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목적은 해당 전승에
배열된 시온 관련 신앙의 신학적 논리 구조를 규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
의 관심은 시온신학의 기원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지 않고, 해당 전승
에서 작동하는 신앙 고백의 구조를 밝히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시편

47 시 76편은 세 번째 요소를 시 46, 48편보다 더 상세히 다루는 반면, 시 46, 48편은 여
호와께서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는 점을 간략히 제시한다.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42.

2, 46, 47, 48, 76, 132편을 중심 자료로 삼고, 윤리적 자격을 전면에 제시하는 본문들(시 15; 24; 사 33장 등)은 후기적 재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범위 설정은 연대 확정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른 방법론적 선택임을 분명히 한다.

시온시편 전승을 구조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초기 전승 층위의 시온 이해는 세 가지 핵심 모티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여호와와 열방 위에 계신 ‘큰 왕’으로 고백되며, 이는 그의 통치를 보편적 차원에서 선포하는 신학적 전제에 해당한다. 둘째, 이 왕권 고백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이해로 구체화된다. 셋째, 그의 임재는 시온의 안전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점은 이 안전이 군사적 조건이나 정치적 역량이 아니라, 여호와와 왕권과 임재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시온신학을 재정리하였다. 로버츠가 제시한 요소들을 출발점으로 삼되, 모든 요소를 동일한 역사적 층위에 두지 않고 전승의 형성 과정을 층위별로 구분함으로써, 초기 전승의 신학적 중심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여호와와 왕권-시온의 거주-시온의 안전이라는 흐름은, 이후 예언서에서 강조되는 윤리적 자격 문제와는 구별되는 초기 전승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이는 시온신학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을 재해석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시온시편에는 적대 세력의 등장과 패퇴, 시온의 불가침성, 열방에 대한 우월성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시온신학을 왕권 정당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 역시 나름의 설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한 전승 층위에서는 인간 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가 출발점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오

히려 인간 왕권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놓인 종속적이며 위임된 통치 권으로 이해된다(시 2편). 특히 인간 왕권이 여호와의 통치에 종속된 왕 권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이 전승은 정치적 함의를 지니면서도 인간 왕권을 자율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정당화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는 구별된다. 통치의 궁극적 주체는 일관되게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로 제시되며, 인간 왕권은 그 보편적 주권 아래에 놓인 제한적 통치로 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온에 관한 이 전승을 단순한 정치적 정당화 담론으로 환원하는 해석은 그 신학적 배열과 권위 귀속의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 시온시편 전승의 초기 전승 층위는 여호와의 왕권 고백에서 시작하여 시온의 거주 신앙 을 거쳐 시온의 안전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신앙적 흐름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이 흐름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시기 시온 에 관한 신앙 이해의 신학적 특징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물론 본문의 연대와 전승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 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점은 해당 전승에 나타난 시온 관련 신앙을 단순 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환원하기보다, 여호와의 왕권과 임재를 중심으로 배열된 신학적 논리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참고문헌

- 기민석, “시 82편: 우가릿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15.2 (2009): 111-130.
- 이준혁,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30.4 (2024): 311-332.
- 서재덕, “도시와 성전: 시온 신학의 기원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6.2 (2020): 14-40.
- Bentall, Jonathan D. “Jeremiah’s Temple Sermon and the Hermeneutics of Tradition.”

- PhD diss., Durham University, 2017.
- Clements, Ronald E. *Isaiah and the Deliverance of Jerusalem*. JSOTSup 13. Sheffield: JSOT Press, 1984.
- _____. *Isaiah 1-39*. NCB. Grand Rapids: Eerdmans, 1980.
- Clifford, Richard J.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Craigie, Peter C. *Psalms 1-50*. WBC 19. Waco: Word, 1983.
- Cross, Frank Moore. "Notes on a Canaanite psalm in the Old Testament." *BASOR* 117.1(1950): 19-21.
- _____.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Eissfeldt, Otto. *El im ugaritischen Pantheon*. Berichte über die Verhandlungen der Säch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Leipzig, Philologisch-Historische Klasse 98/4. Berlin: Akademie-Verlag, 1951.
- Flynn, Shawn W. *Yhwh Is King: The Development of Divine Kingship in Ancient Israel*. *VTSup* 159. Leiden: Brill, 2014.
- Gaster, Theodor H. "Psalm 29." *JQR* 37.1 (1946): 55-65.
- Handy, Lowell K. *Among The Host of Heaven: The Syro-Palestine Pantheon as Bureaucracy*.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4.
- Heiser, Michael. "Deuteronomy 32:8 and the Sons of God." *BibSac* 158 (2001): 52-74.
- Hjelm, Ingrid. *Jerusalem's rise to sovereignty: Zion and Gerizim in competition*.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Jeremias, Jörg. "Lade und Zion: Zur Entstehung der Ziontradition." In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edited by Hans Walter Wolff, 183-198. Munich: Chr. Kaiser Verlag, 1971.
- Kee, Min Suc. "A study of the Heavenly Council in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and its employment as a type-scene in the Hebrew Bible." PhD dis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003.
- _____. "The Heavenly Council and Its Type-Scene." *JSOT* 31.3 (2007): 259-273.
- Koehler, Ludwig, Walter Baumgartner, and M. E. J. Richardson,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Accordance electronic edition, version 3.0. Leiden: Brill, 2000.
- Laato, Antti.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T&T Clark: Bloomsbury Publishing,

2018.

- Levenson, Jon Douglas.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San Francisco, California: HarperCollins, 1985.
- McGarry, Eugene P. "The Ambidextrous Angel (Daniel 12:7 and Deuteronomy 32:40): Inner-Biblical Exegesis and Textual Criticism in Counterpoint." *JBL* 124 (2005): 211-228
- Miller, Patrick D., and Jimmy JM Roberts. *The hand of the Lord: a reassessment of the "Ark narrative" of 1 Samuel*. Atlanta: SBL Press, 2008.
- Mowan, Oswaldus. "Quatuor Montes Sacri in Ps. 89, 13?." *VD* 41 (1963): 11-20.
- Mullen, E. Theodore. *The Divine Council in Canaanite and Early Hebrew Literature*. HSM 24, Chico: Scholars Press, 1980.
- Noth, Martin. "Jerusalem und die israelitische Tradition." *OTS* 8 (1950): 28-46.
- Ollenburger, Ben C.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JSOT 4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Roberts, J. J. M.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collected essay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2.
- _____.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collected essay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2.
- _____. *First Isa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 Robinson, A. "Zion and saphôn in Psalm XLVIII 3." *VT* 24 (1974): 118-123
- Rohland, Edzard. "Die Bedeutung der Erwählungstraditionen Israels für die Eschatologie der alttestamentlichen Propheten." PhD diss., Heidelberg, 1956.
- Sidebotham, Dorothy Margaret. "Zion and the psalms: A re-examination of the zion trad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psalms." PhD dis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91.
- Stolz, Fritz. *Strukturen und Figuren im Kult von Jerusalem: Studien zur altorientalischen vor-und frühisraelitischen Religion*. BZAW 118. Berlin: W. de Gruyter, 1970.
- Sweeney, Marvin A. *Zephan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Von Rad, Gerhard. "Die Stadt auf dem Berge." *EvT* (1948): 439-447.
- Wessels, Wilhelm J. "שִׁלְחָה Proclamations in the Book of Jeremiah: The Dilemma of

Jeremiah 4:10 and 23:17." *HTS Theologiese Studies / Theological Studies* 79, no. 2 (2023): Article a8122.

Wildberger, Hans. *Isaiah 28-39*. CC.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Zvi, Ehud Ben.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BZAW 198.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검색어

포로기 이전 왕국 시대 시온신학, 초기 전승 층위, 여호와의 왕권, 여호와의 시온 거주, 시온의 안전

[ABSTRACT]

The Theological Logic of Zion Faith in the Pre-Exilic Period: YHWH's Kingship, His Dwelling in Zion, and Security

Joon-Hyuk Lee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heological logic embedded in the Zion Psalm tradition associated with the pre-exilic period, focusing on the early stratum that derives Zion's security from YHWH's kingship and presence without presupposing ethical qualification. Rather than reopening debates over the origin or dating of Zion theology, the study aims to clarify the internal structure of faith confessions arranged within this tradition. Rather than recasting it as mere political legitimation, the study proposes that it is better understood as a theological articulation centered on YHWH's sovereignty and presence.

The analysis is based on Psalms 2, 46, 47, 48, 76, and 132. Texts that foreground ethical conditions — such as Psalms 15, 24, and Isaiah 33 — are excluded from the primary scope, as they more plausibly reflect later reinterpretation. While drawing on J. J. M. Roberts' motif analysis as a heuristic point of departure, the study critically reassesses its applicability to the early stratum.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Roberts' Element C — which ties Zion's security to the ethical fitness of its inhabitants — reflects a later layer of tradition and should not be read into the early stratum without distinction.

www.kci.go.kr

Three interconnected motifs are identified as structuring Zion-related faith in this early layer. First, YHWH is confessed as the great king over all nations, providing the theological premise for the entire tradition. Second, this confession of kingship is concretized in the affirmation that YHWH has chosen Zion as his dwelling. Third, his enthroned presence in Zion serves as the sole basis for the city's security. In these texts, Zion's inviolability rests not on military strength, geographical advantage, or the moral condition of its inhabitants, but on the divine presence itself.

By clarifying this theological structure, the study proposes a reading that does not reduce the Zion tradition to political ideology. While the tradition carries political implications, the ultimate subject of rule is consistently presented as YHWH rather than the human king, whose authority is delegated and subordinate. This distinction provides a theolog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the prophetic critique of Zion theology as a process of ethical reinterpretation rather than outright rejection.

key words

Pre-exilic Zion theology, Early tradition stratum, YHWH's kingship, Divine dwelling in Zion, Zion's security

투고일 : 2026년 02월 01일

심사일 : 2026년 04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05월 06일

www.kci.go.kr